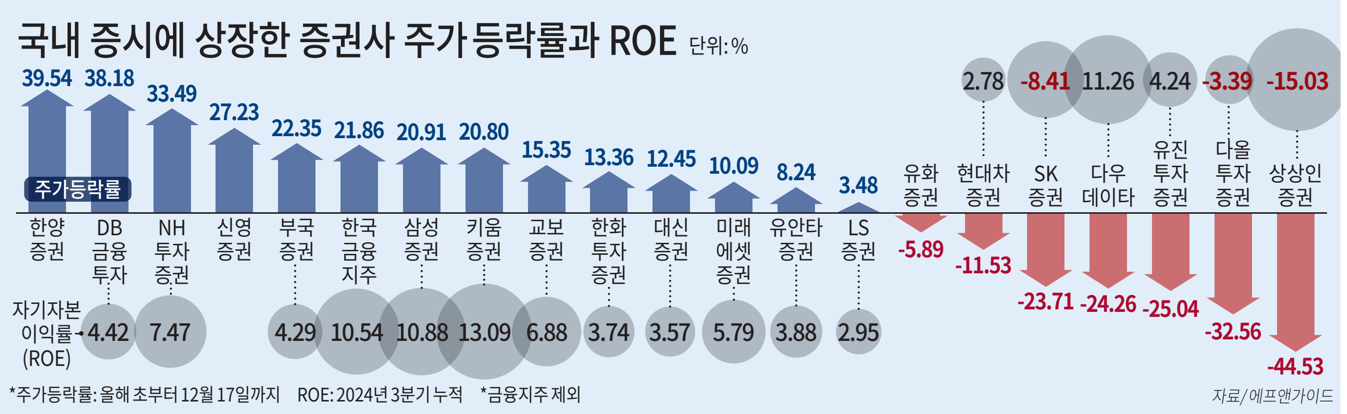
증권주, 밸류업 참여 여부에 '희비'… NH증권 시총 2위 차지

한양증권, 경영권 매각으로 상승랠리
DB금융투자, 중소형사 중 첫 참여
NH투자증권, 주주환원 기조 지속
3개社, 올해 주가 상승률 30% 대



올해 증권 업종의 주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를 제외한 대형 증권사 중 주주환원 의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였던 NH투자증권은 주가가 급등하며 증권 업종 내 시가총액 2위를 차지했고, 중소형사 중 선두로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DB금융투자는 중소형사 주가 하락세에서 제외됐다.

1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금융지주를 제외하고 국내 상장된 증권사 중 올해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증권사는 한양증권, DB금융투자, NH투자증권 순이다. 3개 증권사 모두 올해 들어 17일까지 주가 상승률 30%대를 기록했다.

이 중 한양증권은 올해 '경영권 매각' 이슈가 불거지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상승 랠리를 펼친 바 있다.

DB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공시)'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DB금융투자는 지난 9월 자기자본 3조원 미만 중소형 증권사 중 첫 번째로 밸류업 공시를 발표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 주주환원율 40% 이상 유지 등이 핵심이다. 밸류업 공시 직후였던 6일에는 전 거래일보다 21.40% 급등했다.

NH투자증권도 이달 내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 공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자사주 417만주를 매입한 뒤 4월 내 소각했다. 이는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진행된 자사주를 매입·소각이며, 향후에도 주주환원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배당 성향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의 50.1%로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주요 증권사들의 배당성향은 30~40% 사이에 머물고 있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NH투자증권은 올해 13년 만에 자기 주식 매입 및 소각을 재개했는데, 향후에도 자기주식을 활용한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을 포함 시 연간 주주환원수익률은 업종 내에서 가장 높은 8.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주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증권업계 시총 2위로 올라섰다. 연초까지는 삼성증권이 미래에셋증권 다음 순서를 지키고 있었다. 이날 2시 45분 기준 KRX증권 지수 내 시총 순위는 미래에셋증권(4조9986억원), NH투자증권(4조5783억원), 삼성증권(4조2685억원) 순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부의 금융정책에 발맞춰 업계 선도 증권사로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실적이 부진했던 중소형사들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가가 실적과 비례하게 움직이는 만큼 증권사 규모별 양극화 현상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다고 알린 현대차증권은 당일에만 주가가 13.07% 빠졌다. 이후 주주들의 민심이 악화되자 대주주사인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등의 유상증자 배정 물량에 전량 참여와 '밸류업' 본격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투심을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다. 이날도 유상증자 발표 전까지 8000원대였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7000원 선에 머물고 있다.

올해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받은 SK증권과 다올투자증권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두 증권사와 더불어 상상인증권도 ROE 측면에서 나란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연초보다 20~40%씩 떨어졌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확고한 양강' ETF 시장… 중위권 경쟁 치열

삼성-미래에셋운용 양강 체제
3위 놓고 KB-한투운용 경쟁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170조원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양강 체제 속에 3위를 놓고 KB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운용사들은 ETF 관련 조직을 재정비, 리브랜딩에 나서는 등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내년에는 점유율 순위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종가 기준으로 ETF 점유율 상위 5개사는 삼성자산운용(38.48%), 미래에셋자산운용(36.10%), KB자산운용(7.71%), 한국투자신탁운용(7.40%), 신한자산운용(3.10%) 순이다.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굳힌 가운데 KB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이 3,4위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전년 대비 점유율을 2.57%포인트 끌어올리며 KB자산운용과의 격차를 1%포인트 이내(0.31%포인트)로 줄였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빅테크, 반도체 등 산업 트렌드를 선도하는 테마형 ETF를 출시하며 차별화된 운용 전략을 통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평가다.

〈16일 종가기준 운용사 ETF 점유율 순위〉

운용사	순자산총액	점유율
삼성자산운용	66조4986억	38.48%
미래에셋자산운용	62조3813억	36.10%
KB자산운용	13조3203억	7.71%
한국투자신탁운용	12조7887억	7.40%
신한자산운용	5조3527억	3.10%
키움투자자산운용	3조6468억	2.11%
한화자산운용	3조4086억	1.97%
NH아문디자산운용	1조6621억	0.96%

/금융투자협회

3위권 경쟁은 내년에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KB자산운용은 지난 7월 브랜드명을 기존 'KBSTAR'에서 'RISE'로 변경하며 전략 개편에 나서는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역시 내년에도 유망 투자 테마를 반영한 상품 개발과 마케팅을 강화하며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컨설팅담당은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상품 개발, 운용 효율성, 마케팅의 삼박자를 균형있게 유지하며 점유율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ETF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5~8위권 중위권 운용사들 사이에서도 리브랜딩과 조직 개편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점유율 순위 변동 등 시장경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한화자산운용은 지난 7월 'ARIRANG'을 'PLUS'로 리브랜딩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은 내년 1월 기존 ETF 브랜드 'KOSEF'를 'KIWOOM'으로 변경하고, 액티브형 ETF 브랜드 '히어로즈'도 동일 브랜드로 통합할 예정이다.

점유율 8위 NH아문디자산운용은 ETF 전문 조직을 신설하며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ETF투자부문을 신설하고 ETF투자부문장에 한수일 채권운용부문장이 겸임하도록 했다. 김승철 패시브솔루션본부장은 ETF 투자본부장으로 새로 선임됐다.

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ETF 투자 자산의 다양성 증가와 연금계좌의 ETF 관심도 증가 등으로 인해 내년에도 ETF시장의 성장이 예상된다"면서 "운용사들 간의 차별화된 ETF 상품 경쟁도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항공사 대형화로 노선·서비스 확대 전망"

삼일PwC,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에
국내 항공운송산업 변화·영향 살펴

국내 양대 대형항공사(FSC)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여정이 4년여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통합으로 글로벌 10위권의 메가캐리어(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면서 국내 항공운송산업에도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노선 재분배와 신규 노선 개발로 가격 경쟁이 완화되고 규모의 경제를 이뤄 운항 효율성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8일 삼일PwC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따른 항공업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통해 양대 국적기 통합을 통해 국내 항공운송산업에 나타나는 변화와 영향을 살펴보고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합병으로 항공사 대형화가 이뤄지며, 여객 부문에서는 제공 노선 및 서비스 확대를 뜻하는 공급 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사 산하의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LCC) 통합에 따라 LCC 내 점유율 1위(41%)로 등극하면서 대형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도 기대된다.

보고서는 "LCC들이 장거리 노선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자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항공사 통합 및 인수합병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며 추가적인 인수합병 가능성을 언급했다.

항공산업의 대형화를 통해 ▲불필요한 좌석 가격 경쟁 감소 ▲규모의 경제로 인한 수익성 개선 ▲외부 변수에 대한 민감도 약화 ▲재무구조 개선 효과 등도 기대되고 있다.

/허정윤 기자

ATS 출범해도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동일

(대체거래소)

금감원 'ATS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

내년 3월 대체거래소(ATS) ATS 출범 이후 한국거래소(KRX)의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오후 3시2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 해당 10분간 ATS 거래는 중단된다. 이는 지난 ATS 운영 세미나 당시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ATS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250여명이 참석했다.

ATS 출범·운영과 관련해 각 유관기관은 ▲ATS 출범에 따른 시장 세부 운영 사항(금감원) ▲거래소 공시운영 및 공시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방안(한국거래소) ▲ATS 도입에 따른 주식기관 결제 실무(예탁결제원) ▲모의시장 진행경과 및 이행계획(넥스트레이드) 등의 주제로 설명에 나섰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신한투자증권, AI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

SOL증권 MTS서 美 상장종목 등 추천

신한투자증권은 신한 SOL증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에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한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 및 '해외주식 뉴스 제공'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신한투자증권 연관도 분석 AI 알고리즘으로 기업 정보 및 IR 보고서상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 국내 상장기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미국 상장종목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투자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국내기업과 유사한 동종산업의 미국상장기업 투자를 쉽게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신한 SOL증권 MTS 내 국내 종목의 현재가 정보 탭 하단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한투자증권은 해외주식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로이터뉴스 번역 및 요약 서비스도 함께 오픈했다. '해외주식 뉴스 제공' 서비스는 LSEG(런던증권거래소그룹, 구 레피니티브)가 제공하는 로이터뉴스를 미국종목에 한해 종목별 뉴스 탭과 홈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영문 번역 및 요약은 AI 스타트업 업체 웨이커와 신한투자증권 뉴스 요약 AI가 함께 가공해 원문과 함께 제공된다.

/신하은 기자